

해성가·도술가의 일원론적 세계관과 민심의 조화

허 남 춘*

1. 서론

향가가 실려 있는 『삼국유사』는 역사서이자 이야기책이다. 『삼국사기』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신화와 기이한 이야기가 풍부하여, 유가적 정통론자들이 보기에는 괴력난신(怪力亂神)의 황당무계한 이야기라 할 만하다. 그 이야기들 속에 14수의 향가가 있다. 이 노래들은 부대설화와 함께 읽어야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노래들이 있다. 해성이 나타나는 변괴에 노래를 불렀더니 해성이 사라졌다거나, 두 해가 나타나는 변괴에 노래를 불렀더니 해가 하나 사라졌다는 사연은 합리적 사고로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노래들을 단순히 주술가라고 해석하고 말거나, 종교적 신이함이라고 단정하고 말 일은 아니다. 이 논문은 현대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시도되었다.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조상들은 우주의 변괴와 자연의 재이(災異)가 인간사회의 변란으로 이어진다고 사유했는데, 왜 그들은 이런 연관성을 믿고 있었을까. 단순히 자연계와 인간세계가 유기체적이라는 일원론적 세계관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끝낼 수는 없다. 거기엔 나름의 논리가 숨어 있을 것이다. 그것이 현대의 우리에게 불합리하게 느껴지더라도 '불합리 속의 논리'를 담고 있을 것이라 여겨지고, 이 사고의 심연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삼국유사』에 대한 관심은 대개 다음의 네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삼국사기라는 역사서를 보완할 고대사 자료로서, 설화문학의 보고로서, 불교사를 집대성한 자료로서, 그리고 우리 시가사에서 가장 오래 된 향가 14수를 담은 책으로서이다. 국문학계에서는 14수밖에 안 되는 향가 작품에 대해 수천편의 논문을 쓰며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조선후기와 근대로 떠나버렸다. 고대와 중세의 문학을 다루려면 서지적 이해, 언어 해독, 당대 문학의 관습과 특성,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별도로 탐구해야 하는데, 그런 번거로움을 감수하려 않기 때문이다.

향가 14수에 결합되어 있는 설화에 대한 관심도 미미하다. 설화문맥을 합리적 사고로 읽어내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억측이 무성하다. 용과 접촉하여 낳은 자식이 왕이 되었다는 서동요의 설화, 용에게 잡혀갔다가 돌아온 수로부인의 설화, 용의 자식이 경주에서 아내를 역신에게 빼앗기고 노래를 불렀다는 처용가 설화 등은 단순한 사실적 기록이 아니다. 신화적 상상력으로 접근해야 할 경우도 있고, 제의와의 상관성에서 읽어내야 하는 문맥도 있다. 하늘에 해가 둘이 나타난 변괴나 해성이 나타난 변괴를 해결하였다는 「도술가」나 「해성가」 설화도 당대인의 사고체계 속에서 읽어내야 한다.

우주의 변괴를 없애기 위해 낭승(화랑이면서 승려)을 불러 향가를 짓게 한 해결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적·논리적 사고로는 접근할 수 없는 황당한 사건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근대 이전의 전근대는 비과학적·초월적·미신적·종교적 사유라고 근대정신과 구획짓고 말 일은 아니다. 우주의 변괴를 해결하는 방식은 지금 우리에게 비현실적일지 모르지만, 당대인들에게 과학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근대 과학과는 괴리되고 상반된다. 혹시 근대성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중세의 과학이 근대의 과학과 만나는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런 반성 속에서 『삼국유사』 향가 관련 설화를 새롭게 탐색하고자 한다.

* 제주대학교 교수

2. 혜성의 변괴를 해결한 노래

제5 거열랑, 제6 실처랑, 제7 보동랑 등 세 화랑의 무리가 풍악에 놀러가려 하는데, 혜성이 나타나 심대성(心大星)을 범하였다. 낭도는 이를 의아하게 여기고 그 여행을 파하려 하였다. 이때 용천사가 노래를 지어 불렀더니, 별의 변괴는 즉시 사라지고, 일본병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오히려 복과 경사가 되었다. 대왕은 환희하여 낭도를 보내어 풍악에 가 놀게 하였다. 노래는

옛날 동쪽 물가 건달바의 논 성을랑 바라고,

왜군이 왔다 햇불 올린 어여 수풀이여,

세 화랑 산 보심을 듣고 달도 갈라 그어 찾아들려 하는데,

길 쓸 별 바라고 혜성이여 사된 사람이 있다.

아아, 달은 떠갔더라 이에 어울릴 무슨 혜성을 함께 하리.(『삼국유사』, 용천사 혜성가 진평대왕조)

처음 두 줄은 건달바가 놀면서 만들었다고 하는 환상의 성을 바라보고 왜군이 왔다고 봉화를 올린 수풀이 있었다고 했다. 건달바는 불교에서 말하는 음악과 놀이의 신이고, 건달바가 논 성은 바로 신기루다. 혜성이 나타났다는 것은 신기루를 보고 왜군이 왔다고 수풀에서 봉화를 올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

셋째 줄에서는 달을, 넷째 줄에서는 다시 별을 말하였다. 세 화랑이 산을 보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 달도 하늘을 갈라 그으며 찾아지려 하다가, 마침내 떠나가버렸다고 했다. 혜성이라고 하던 것이 길을 쓸고 가는 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세 화랑은 달과 별을 무색하게 하는 해와 같이 우뚝한 존재이다. 그런 기백을 가지면 어떤 위기라도 극복할 수 있다.¹⁾

혜성이 출현하고 용천사가 노래를 부르자 혜성이 사라지고, 일본병이 물러갔다는 사연이다. 여기서 화랑은 풍악에 놀러가려다 중지했고, 변괴 해결 후에 다시 떠났다.²⁾ 화랑들이 풍악으로 놀러간다고 함은 단순하게 놀러가는 것

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제4판), 지식산업사, 2005, 166쪽.

2) 화랑들이 금강산에 놀러간다는 것(出遊)은 단순하게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화랑

이 아니라 명산대천에 치제(致祭)하러 가려던 것이었다. 그런데 떠남에 임박하여 혜성의 조짐이 나타나고 일본군의 침입이라는 실상이 곧바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 위기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을 것이다. 그러나 위기를 해결하는 실마리는 용천사의 노래이다.

우주의 변괴는 인간사회의 변괴를 알리는 징후이다. 혜성의 출현은 바로 일본병의 침입을 알리는 징후이고 미리 대비하도록 경고하는 것이다. 당대인들은 그렇게 믿었다. 더구나 이 혜성은 심대성을 범하였다. 동궁(東宮)의 가장 중심적인 심성(心星)은 신라의 상징으로 비의된다.³⁾ 유성이 심성을 범하자 왕(경덕왕)이 죽게 된 사연도 있다.⁴⁾ 혜성이 심대성을 범한 것은 매우 중한 사태인데, 우주의 변괴에 대처할 겨를도 없이 일본병의 침입이 이어졌다. 그들은 우주의 변괴를 해결하면 일본병도 물러갈 것이라 생각하였거나, 아니면 코앞에 닥친 일본병을 물리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하늘의 혜성과 땅의 왜군이 서로 다른 이종의 위기를 조성한 것은 아니다. 신라 왕실은 이 변괴의 해결을 위해 용천사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한다. 현실적 대응보다 문화적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당대인의 세계관을 중시해야 한다.⁵⁾ 노래를 부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들의 수련행위일 것이다. 그리고 왜병의 환국 소식이 있자 풍악으로 행한 것은 당시 신라가 일본의 상황과 저의를 간파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 한다.(황병익, 「혜성가의 쟁점과 의미 고찰」, 『한국시가연구』 17집, 한국시가학회, 2005, 189쪽) 황병익 교수는 일본군의 신라 침입사실을 『일본서기』를 인용하여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3) 김승찬, 「혜성가」, 『향가문학론』, 새문사, 1986, 195쪽.

4) ‘流星犯心 是月王薨(『三國史記』, 新羅本紀 第九, 景德王 24年 6月條)

5) 이도흠 교수는 “혜성 출현을 무화하는 주술가를 부르게 하려는” 이 시도에 대해 “비합리적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적 대응과 문화적 대응을 함께 관심 두어야” 한다고 했다.(「향가 텍스트와 서사 맥락의 합일 문제」, 『한국시가연구』 13집, 2003, 16쪽) 여기서 주술가라고 한 것은 주술적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서철원 교수도 “문화적 대응은 현실적 대응에 비해 간접적·추상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적 대응을 현실적 대응보다 더 중시하였다”고 하여 이도흠 교수와 같은 견해를 밝혔다.(「진평왕대 혜성가와 서동요 비교」, 『고전문학연구』 30집, 한국고전문학회, 2006, 121쪽)

용천사의 노래에 주술성이 있어 그런 해결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말로 하면 결과가 되던 시대도 있었다. 언어와 노래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주술로 재앙을 퇴치하기도 하고 안녕과 평화의 소원을 성취하기도 했다. 「구지가」의 강제적·직접적 주술의 노래에는 그런 힘이 있다고 사유되었다. 그러나 고대 이후 노래는 더 이상 주술의 자장에 머무르지 않고 기원의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불교적 사유가 들어오면서는 더더욱 기원의 형식으로 바뀌어 갔다.

「혜성가」의 노랫말이 ‘호칭 - 명령 - 가정 - 위협’의 주술성을 띄고 있지 않는데, 주술적 효과를 얻었다.⁶⁾ 그렇다면 이 노래도 주술가인가? 노래를 불렀다고 갑자기 혜성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의문이다. 노래를 불렀는데 일본병이 물러간 것은 조금 납득할 구석도 있다. 노래가 일본병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내용이었다면 물러날 개연성은 조금 있지만, 용천사의 노래에는 그런 압박과 위협이 없다. 이 노래가 오랜 전쟁에 시달리는 일본병을 고향생각에 젖게 하여 돌아갈 뜻을 품게 만들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노래 - 문제 해결’이라는 상황에는 중간 매개항이 필요하다. ‘A:노래 - B:중간 매개 - C:문제 해결’의 등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어낸다면 ‘중간 매개’는 신라 왕실의 군사적 행동이나 백성들의 단합된 힘일 수 있다. 그런 결집과 행동은 어떻게 가능한가. 혹은 일본군이 쳐들어온 상황에서 급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일본병의 침입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도피하고 사태는 견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을 것이다. 더구나 혜성의 변괴까지 겹친 상황이었다. 혜성의 출현으로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달아나는 상황에서, 재를 열고 노래를 불러 바친 것은 “민심의 이반을 방지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려는 수습책”⁷⁾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들을 달래서 결집시키고 일본병을

6) 혜성가는 주가가 아니라, 동종주술의 주가를 패러디했다고 본다.(양희철, 「향가의 주가성을 다시 생각해 본다」, 『한국시가연구』 8집, 한국시가학회, 2000, 10쪽)
7) 정상균, 「혜성가·원가 연구」, 『한국 판소리 고전문학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3, 329쪽. 그는 재를 연 국내의 기록을 감안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했는데, 본고는 재(제의)뿐만 아니라 노래의 효용성을 함께 강조하는

막아낼 조치는 다름 아닌 민심을 수습하고 위안하는 길이었을 것이다. 민심을 수습하여 달래고 결집하여 군사적인 반격을 가하였을 때 일본군은 물러났을 것이다. ‘B:중간 매개’는 ‘민심의 조화’이다. ‘B - C’의 관계는 어느 정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A - B’의 관계도 성립하는가.

노래는 소리의 가장 조화로운 모습이다. 소리를 조화롭게 한다는 것은 백성의 감정을 조화롭게 하고, 결국 민심을 조화롭게 하여 천지의 조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을 화평하게 하면 인간의 말과 소리를 조화롭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의 불평과 불만을 해소하거나 외적의 침입을 해결하여 사회적 조화를 도모할 수 있고, 상하관계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결국 정치적인 안정을 얻어 천하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왕을 믿지 못하던 백성들이 일본병의 침입에 우왕좌왕하다가, 백성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민심을 잘 이해하게 되면 백성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왕을 도와 병란 해결의 의지를 결집하는 장면이 떠오른다. 상하의 관계가 회복되고 민심이 수습되고, 백성은 창과 칼을 들고 일본병에 대적하여 나간다. 일본병이라는 것이 환상의 성에 불과해 곧 사라질 것이라고 용기를 북돋고, 혜성이 나타난 변괴에 두려움이 남은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 혜성이라는 것이 ‘길을 쓰는 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두려움을 버리게 만든다.⁸⁾ 혜성이 불길한 기운이라는 관념을 깨고 오히려 위기를 해결할 중요한 계기로 바라본 것이다.⁹⁾ 왕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고, 혜성은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일본병을 물리친다. 인간의 정성과 의지는 천체의 변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 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¹⁰⁾ 노래는 합창이 되어 동해안을 메아

입장이다.

8) 혜성을 ‘길 쓸 별’로, 왜병을 ‘건달바’로 인식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것은 ‘가악이 만들어낸 조화’라고 하겠다.(서철원, 위의 논문, 127쪽)
9) 황병익, 위의 논문, 202쪽. ‘도둑이 와서 개가 짖는데, 그 개를 어찌 요물이라 할 수 있겠는가(『성호사설』) 등의 예를 들어, 혜성이 불길한 기운이라는 관념을 깨고 낯은 것을 털어버리는 변화와 개혁의 조짐으로 보려 하였다.
10) 신재홍 교수는 혜성가를 주술적 해석을 하는 것보다 현실적·합리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천체의 변괴는 인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정성

리치고 결국 정상을 되찾게 된다. 소리의 조화는 민심의 조화를 불러일으킨다. 노래는 소리의 조화이다.(소리의 조화 - 감정의 조화 - 민심의 조화 - 관계의 조화) 그러므로 'A - B'의 관계도 성립된다.

당대의 사람들은 인간세계의 부조화나 갈등, 파탄이나 위기가 발생하게 되거나 발생할 정도의 극심한 상태에 이르면 천체나 우주의 변괴 혹은 재이(災異)가 나타난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중요한 조짐으로 보아 역사에 기록하고 있다. 『삼국사기』와 『고려사』에 기록된 무수한 자연현상에 대한 기록은 바로 그들의 세계관의 반영이다. 그들은 이러한 흉조와 이상이 생겼을 때 가약을 사용하여 그 조화를 도모하기도 하고, 제사를 통해 그 본연의 질서회복을 꾀하였다.

3. 두 해의 변괴를 해결한 사연

경덕왕 19년 경자 4월 1일에 해 둘이 나란히 나타나 열흘 동안이나 없어지지 않았다. 일관이 아뢰기를 연승(緣僧)을 청하여 산화공덕을 지으면 재앙을 물리치리라 하였다. 이에 조원전에 깨끗한 단을 설치하고 청양루에 행차하여 연승을 기다렸다. 때에 월명사가 발두둑의 남쪽 길을 가기에 왕이 사자를 보내 불러 단을 열고 기도문을 지으라 하였다. 월명이 아뢰기를 “저는 국선지도에 속하여 단지 향가를 알 뿐이요 범성에는 익숙지 못합니다”라 하였다. 왕이 “이미 연승으로 뽑혔으니 향가라도 좋다”고 하였다. 이에 월명이 도술가를 지어 바쳤다.

오늘 이에 산화가 불려, 솟아오르게 하는 꽃아 너는

곧은 마음의 명에 부리어 미륵좌주를 모셔 나립하라.(『삼국유사』 월명사 도술가조)

나라에 변괴가 있고 나서 왕이 누각에 나아가 인연 있는 중을 찾아 만나고,

그로 하여금 변괴를 해결하는 노래를 지어 바치게 하였다는 점이 안민가 창작 배경과 같다. 경덕왕 24년에 삼산오악(三山五嶽)의 신들이 현신하여 궁정에서 왕을 모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신라왕실을 보호하는 신의 출현은 국가의 위기를 알리려고 한 의도였고, 그래서 왕은 충담사로 하여금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노래인 「안민가」를 짓게 한 것이다. 『삼국사기』 경덕왕조에 나타나는 해성 출현, 번개, 큰 바람, 지진, 귀신의 북소리 등의 무수한 변괴는 정치적·사회적 혼란과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고, 『삼국유사』에서 삼산오악의 신들이 궁정에 나타났다는 것은 장차 나라에 있을 변란의 조짐을 알려준 상징적 표징이다.

이 노래는 미륵에게 기원해 재앙을 해결하려고 한 불교신앙의 노래같지만, 민간전승에서 가져온 주술이 더 큰 구실을 했다. 미륵에게 바친 공양물인 꽃이 미륵을 모셔오는 매개자가 되도록 하려고, “꽃아 너는” 하고 불려서 주술을 걸었다. 미륵은 다양한 성격을 가진 신앙대상이다. 이 노래에서는 불을 끌 수 있는 물의 상징으로 이해해 용을 뜻하는 ‘마리’와 동일시되는 신앙대상이다.¹¹⁾

변괴가 나타난 음력 4월 초하루는 여름의 시작이다. 해가 둘 나타났다는 것은 우선 뜨거운 햇빛과 더위의 상황을 떠올릴 수 있다. 폭염은 인간만이 아니라 곡식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었다. 당시 농사를 위주로 하는 농경민에게 더위와 가뭄은 치명적인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런 불볕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것은 물이다. 이 노래는 ‘불을 끌 수 있는 물의 상징’인 용을 불러 문제의 해결을 부탁하고 있다.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인간세상으로 월광 둘이 비치고 일광 둘이 비쳐 인간 백성들이 살 수 없으니, 천 근 활 백 근 살을 받아 앞에 오는 해님 하나는 두고 뒤에 오는 해님 하나는 쏘아 동해바다에 던져 두고, 앞에 오는 달 하나는 남겨 두고 뒤의 달은 서해바다로 던져버리니, 그 법으로 해는 하나 동방으로 뜨고, 달은 하나 서방으로 지는 법”을 마련했다고 한다.¹²⁾ 천지왕의 두 아들인 대별왕과 소별왕이 인간을 위해 우주의 변괴를 해결하였

과 선한 의지는 천체의 변괴를 불양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 의식이 나타나 있다고 했다.(『해성가의 역사적 배경』, 『한국시가연구』 16집, 한국시가학회, 2004, 49쪽)

1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172쪽.

12) 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6, 19쪽.

다. 「창세본풀이」에서는 그 조정의 주체가 미륵이고, 「도술가」에서는 미륵좌주이다. 우주가 처음 정비될 당시의 사정을 노래하는 본풀이에 미륵이 등장할 리는 없겠고, 아마 불교적인 습합이 이루어진 후에 불교신앙의 미륵으로 정착되었을 것이다.

이런 창세신화는 인간의 오랜 경험을 담고 있다고 보여진다. 해와 달이 둘 나타났다는 것은 해와 달이 지나치게 가까움을 의미하니, 해가 가까우면 가뭄이 들고 달이 가까우면 홍수가 들었다는 지구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다.¹³⁾ 해가 둘이기 때문에 너무 더워서 살 수 없었고, 달이 둘이어서 너무 추워서 살 수 없다고도 했다. 해가 둘이라는 것은 인간이 경험한 흑서기의 반영이고, 달이 둘이라는 것은 흑한기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구는 40억 년 동안 4-5회의 빙하기를 겪었다고 하고, 3만 년에서 1만 년 사이 중석기시대에 마지막 빙하기가 있었다고 한다. 현생 인류는 이 빙하기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뉴런의 혁명이 있어났다. 뇌에 있는 언어적 인식의 방, 박물학적 인식의 방, 사회적 인식의 방이 통합되어 뉴런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철학적 사고의 최초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들여 신석기 혁명을 준비한다. 농업이 시작되고 동물의 가축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인류가 체험한 가장 거대한 혁명일 것이다. 이 중석기시대에 인류 안에 최초의 철학 형태인 신화가 만들어진다.¹⁴⁾ 신화 속에는 인간이 경험한 자연현상과 혹독한 자연현상을 극복하려는 인간 의지가 담겨 있다.

「도술가」의 설화문맥에는 신화적 상상력이 담겨 있다. 신석기 혁명 이후 인류의 체험은 농업과 긴밀히 연관되고, 가뭄과 홍수를 극복하는 방안을 가장 중시하였을 것이다. 「도술가」 문맥에는 오랜 전통의 주술적 의식이 담겨 있고,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용신에게 비를 비는 의례를 형상화하고 있다. “모셔라”라는 요구의 형식에 주목하여 이 노래를 보면, 구지가의 주술을 떠올릴 수 있다.¹⁵⁾

13) 김헌선, 『한국의 창세신화』, 도서출판 길벗, 1994, 208-218쪽.

14) 나카자와 신이치,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 동아사이, 2003, 15-18쪽.

15) 도술가를 보면 주술의 대상에 대해 초논리적·위협적으로 명령·강제하지 않고

「구지가」에서는 거북을 부르며 머리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당연히 거북이 신은 아니다. 수로의 출현을 기원하면서 거북을 위협하는 언어형식이고, 거북은 신의 매개자이다.¹⁶⁾ 그런데 「도술가」에서도 위협의 대상은 꽃이고, 기원의 대상은 미륵이다. 거북이 신의 매개자이듯이 꽃도 신의 매개자로 해석된다. 「구지가」와 똑같은 주술구조를 지닌 해가에서 거북은 용신의 매개자이듯이, 「도술가」에서 꽃은 용신의 매개자다. 「해가」에서 거북이 바다와 육지를 오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개자였다면, 「도술가」에서 꽃은 생명과 풍요의 상징이다. 제주의 「이공본풀이」에 죽은 자를 살리는 환생꽃이 등장하는데, 이 환생꽃은 가뭄에 시들어가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매개자가 될 수 있다.

「도술가」 문맥은 해가 둘 나타난 천문현상이 표층을 이루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자연현상은 인문현상의 조짐이 된다. 그래서 ‘미륵좌주’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 도술가에서 신앙의 대상인 ‘미륵’은 이미 불교적인 성격을 벗어나 화랑정신의 상징이기도 하다.¹⁷⁾ 미륵이 화랑으로 현신한다고도 했다. 도술가의 해시(解詩)에도 ‘멀리 도술의 대선가를 맞이한다(遠邀兜率大儂家)’라 하여 선가를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선가는 화랑을 의미한다. 화랑을 잘 모셔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나타난다고 하겠다.¹⁸⁾

해는 왕권을 상징한다. 해가 둘 나타났다는 변괴는 이미 많은 선학들이 언급하듯이, 왕권에 도전하는 반왕당파의 출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경덕왕대에는 무열계에 대항하는 내물계의 등장이 있었다. 천상계의 질서와 지상계의 질서를 동일시한 당대 문화 관습에 따라 천문현상과 귀족세력의 도전

논리적·설득적으로 명령·강제하며, 직설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상징 혹은 은유를 통한 간접적 언술방식을 택한다는 점에서 무속의 주술가요와 질적 차이를 보인다.(김학성, 「항가에 나타난 화랑집단의 문화의미권적 성징」, 『성균어문연구』 30집,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1995, 21쪽) 앞 시대의 주술과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구지가와 도술가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16) 성기옥, 「상고시가」, 『한국문학개론』, 새문사, 1992, 46쪽.

17) 김학성,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74쪽.

18) 허남춘, 『고전시가와 가악의 전통』, 월인, 1999, 43쪽.

을 연관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¹⁹⁾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인연 있는 승려를 찾았다고 했는데, 이때 월명사를 만나게 된다. 월명사는 국선지도에 속하기 때문에 향가만을 안다고 하며 「도술가」를 지어 바친다. 경덕왕은 월명사를 위시한 화랑세력을 등에 업고 내물계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었다. 삼국 통일 이전부터 화랑은 무열계 왕권을 떠받드는 세력이었다. “미륵좌주를 모셔 나립하라”라고 한 것은 내물계에게 화랑세력을 받들고 아래에 늘어서라는 요구이다. 아직 경덕왕에게는 화랑이라는 호국세력이 있었고, 이들이 내물계를 호령하면서 위기를 수습할 수 있었다.

두 해가 나타난 상황을 불멸더위와 기쁨으로 보기도 하고, 왕권을 위협하는 또 다른 강력한 세력으로 보기도 하면서, 「도술가」를 주술적 사유와 화랑의 도움이라는 맥락에서 추론해 보았다. 두 해의 상징적 의미를 찾아내 나름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제시하였다고 하지만, 정말 노래를 부르면 두 해가 사라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는 다시 답해야 옳다. 「해성가」와는 다르게 「도술가」에서는 자연의 변괴만 제시되고 인간세계의 변괴는 직접 서술되지 않고 있다. 「해성가」에서는 해성이 나타나고 일본병이 쳐들어왔는데 노래를 불러 물리쳤다고 했지만, 「도술가」에서는 두 해가 나타나고 노래를 불렀더니 그 변괴가 해결되었다고만 했다. 노래를 불러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맥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선 ‘월명사 도술가조’에 함께 실린 「제망매가」를 보면 그 실마리가 잡힌다. 이 노래들은 시경의 시처럼 천지귀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 감동이란 주술적 감동일 수도 있고 일반적 감동으로 읽힐 수도 있다.²⁰⁾

19) 이도흙, 「향가 텍스트와 서사맥락의 합일 문제」, 27쪽. 이 교수는 해성가와 도술가의 서사구조가 내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대동소이하다고 하고, 천상계의 질서와 지상계의 질서는 동일하다는 당대의 인식을 거듭 강조하였다. («도술가」의 화쟁 시학적 연구, 『고전문학연구』 8집, 한국고전문학회, 1993, 60쪽) 그러나 이 교수의 논지는 “불법의 힘은 천상계와 지상계의 혼란을 모두 진화할 정도로 무한장대하다는 것”(61쪽)이라 하여, 불교적인 힘을 주장하여 본고의 논지와 다르다. 그리고 귀족세력의 반기에 대해 김양상(후에 선덕왕)이나 김경신(후에 원성왕) 등의 내물계 세력을 지목하는 대신에, 경덕왕 19년 4월 퇴직하고 해공왕 11년 반역을 도모하다 사형을 당한 염상(《삼국사기》의 기록)을 지목하고 있다.(68-69쪽)

월명이 또 일찍이 죽은 누이를 위하여 재를 올리고 향가를 지어 제사하니, 홀연히 광풍이 불어 지전을 날려 서쪽으로 향해 없어졌다.…… 월명이 항상 사천왕사에 있어 저를 잘 불었다. 일찍이 달 밝은 밤에 저를 불며 문 앞 큰 길을 지나니 달이 가기를 멈추었다. 이로 인하여 그 길을 월명리라 하였다.…… 신라사람이 향가를 숭상한 자가 많았으니 대개 향가는 시송(詩頌)의 종류인가. 그러므로 능히 천지귀신을 감동시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찬하노니 ‘바람은 지전을 불어 저 세상에 가는 누이의 노자를 삼고 부는 피리는 명월을 움직여 향아를 머무르게 하도다.’(『삼국유사』, 월명사 도술가조)

여기서 월명이 죽은 누이를 위해 향가를 지어 제사를 하니 지전이 바람에 날려 갔고, 저를 불면 달이 가기를 멈추었다고 한다. 이는 ‘바람이 움직여 사물이 소리를 내매 그 소리가 사물을 움직일 수 있다’²¹⁾는 시경의 감동 원리와 통한다. 향가의 노랫소리가 바람을 불러일으켜 지전을 날려 보내고, 월명의 첫대소리가 달을 멈추게 한다는 사연은 ‘소리가 사물을 움직인다’는 소리의 감동론을 지향한다. 자연의 바람이 불어(驚颺吹) 지전을 날리는 감동도 있고, 인위적인 바람을 불어넣어(吹笛) 달을 멈추게 하는 감동도 있다. ‘취(吹)’란 자연의 바람이 불 때도 악기를 불 때도 쓰이는 것이었고, 자연의 바람이 인간세계를 움직일 수 있었고 인위적인 바람소리(첫대소리)가 자연을 움직일 수도 있었다. 바람소리는 우주 자연의 운행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20) 성기욱, 「‘감동천지귀신’의 논리와 향가의 주술성 문제」, 『임하 최진원박사 정년논총』, 대한, 1991, 71-72쪽. 최진원 교수는 “향가와 시송은 천지귀신을 감동시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시송은 추상적인데 반하여, 향가는 구상성이다. 향가는 제의를 통한 생의 표현-서정성이다”(「향가의 ‘감동천지귀신’고」, 『도남학보』 12집, 1990, 7쪽)라 했고, 성기욱 교수는 이 논문을 더욱 구체화시켜 “일연이 이해하는 천지귀신으로서의 신관념은 전통적인 유가의 그것보다 훨씬 인격화된 구체성을 띄고 있다. 그가 예든 <도술가>의 미륵보살과 동자, <제망매가>의 아미타불과 죽은 누이동생의 영혼, 월명리의 유래담에 나오는 달과 피리의 교감 등이 모두 그러한 인격신으로서의 구체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향가가 감동시키는 대상은 ‘인격화된 구체성’을 가진 존재이다.

21) 如物因風之動以有聲 而其聲又足以動物(『詩傳』, 詩集傳序)

소리의 조화된 모습이 노래이다. 바람이 지전을 날리는 감동도 가능하지만, 월명의 피리소리나 노래는 누이의 왕생을 돕고 달의 운행을 멈추게 할 수 있듯이, 두 해의 변괴를 없앨 수도 있는 것이다. 신라인은 이처럼 소리의 감동을 정치적인 위기나 우주적인 변괴를 조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본 듯하다. 그것이 두 해를 없앨 정도의 대단한 위력-주술적인 감동이라 할 수도 있지만, 인간과 사회를 움직이는 시적 울림 - 일반적 감동일 수도 있다. 자연의 변괴라는 문맥에는 인간세계의 부조화라는 현실적 상황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노래(시)를 통해서 인간사회를 움직이고자 했던 것이다. 이 노래를 불러 두 해의 변괴를 해결하였다는 이면에는 역시 인간의 노력이 감추어져 있다. <혜성가>에서처럼 왕이 민심을 수습하려는 지극한 정성²²⁾이 있었고, 노래만큼 인간의 감정을 조화시키고 위무하는 것은 없다는 사유를 반영한다. 왕의 민심 수습책은 모반을 해결하고 화랑의 도움을 이끌어냈다.

4. 노래와 민심의 조화

국가적인 노래(악)는 통치질서와 연관된다. 예를 통해 상하의 질서를 구축하고 악을 통해 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계층을 통합하였다. 그래서 건국 초기나 국가의 기강이 흐트러지고 전란 등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으레 악을 정비하였다. 악은 결국 민심 수습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신라 초기 「덕사내(德思內)」나 「석남사내(石南思內)」와 같은 지방의 악(郡樂)을 가져와 궁중악에 편제한 것은 지방민심을 수습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으며²³⁾, 신라 말 국가적인 위기를 맞게 되자 토속신 제사를 드리고, 아울러 가

22) 양희철, 교수는 시경의 감동론을 '至誠'으로 해석하였고, (273-285쪽) 향가 <도솔가>의 감동은 '直心'과 '誠心'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언한다. (「향가 감동론의 '능감 동천지귀신' 연구」, 『어문연구』 32집, 어문연구학회, 1999, 285쪽)

23) 여기현, 『신라 음악상과 사녀가』, 월인, 1999, 52-53쪽.

이민홍, 『한국민족음악과 시가문학』,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114쪽.

악을 중시한 것도 발호하는 호족과 그에 동조하는 백성들의 불만과 위화감을 무마하기 위한 일환이었다. 국가적인 차원의 제의를 드리는 것은 국가의 불행한 사태를 미리 방지하여 백성들을 안돈케 하려는 것이다.²⁴⁾

악의 정비에는 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다. 악의 대표는 적(笛)이었다. 가장 천이백 알이 들어가는 길이의 적대를 만들고 이 적대의 소리를 기준으로 삼아 다른 악기의 음을 정비하였다고 한다. 요즘의 피아노 기준음에 맞춰 오케스트라의 음을 조화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적대는 도량형의 기본인 '척(尺)'이 되었다. 도량형의 완비는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토대가 되었고, 백성들은 일정한 경제적 수입을 보장받게 되니, 자연 민심이 안정되고 통치질서가 구축되었던 것이다. 서구식 근대화 직후 미터법을 보급하여 상거래를 바로잡아 경제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한 점도 역시 통치질서의 구축과 연관된 정책이라 하겠다.

윤천사가 「혜성가」를 지어 혜성이 나타난 변괴를 없앴다는 사실에서 노래에 담긴 주술적 서정성을 찾을 수 있고, 노래가 우주의 변괴를 퇴치할 힘이 존재한다고 믿은 당대인의 사유를 알 수 있다. 효소왕 때 혜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금(琴)과 적(笛)을 봉작(封爵)하지 아니 한 때문이란 일관의 말을 듣고 적(笛)에 만만파파식적(萬萬波波息笛)이라 봉하니 혜성이 사라졌다고 한다.²⁵⁾ 노래로 혜성을 퇴치한 것은 아니지만 현금(玄琴)과 신적(神笛)과 같은 신물(神物)의 영험함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찌기 신문왕 때부터 만파식적의 신이한 힘은 알려졌다. 왕이 동해안에 나갔을 때 용이 대를 바치며 “성왕이 소리로써 천하를 다스릴 상서로운 징조이니 이 대를 취하여 저를 만들어 불면 천하가 화평할 것이다”라 하여 대로 저를 만드니, ‘이 만파식적을 불면 쳐들어온 병사가 물러나고 병이 낫고, 가물었을 때 비가 오고 비가 오다가도 맑게 개고, 풍파가 가라앉는다고 한다.’²⁶⁾ 월명사의 저를 연주하는

24) 신재홍, 「향가에 나타난 정치의 이념과 현실 -도솔가·안민가·원가를 대상으로」, 『고전문학연구』, 26집, 2004, 198-199쪽. 그는 이 제사를 불양의식이라 했고, 불법의 가호를 기대한 것이라 하여, 본고의 취지와는 다르다.

25) 『三國遺事』 卷第三, 栢栗寺條

26) 吹此笛 則兵退病愈 旱雨雨晴 風定波平 號萬波波息笛, (『三國遺事』 卷第

소리가 달을 멈추게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악기의 소리가 우주적 변이를 물리칠 수 있고, 사회적 변란을 해결할 수도 있고, 외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노래 - 악(樂)'의 효용성을 언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소리로 천하를 다스려 화평하게 할 수 있다고 사유한다는 점이다.

이런 사유는 조선조에까지 이어진다. 조선 초 악장 『몽금척』에는 태조가 꿈에 하늘이 내린 금척(金尺)을 받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고 한다. 『용비어천가』에서도 “자로써 제도가 나므로 인정(仁政)을 맡기리라 하늘의 금척을 내리시니”(83장) 이라 했다. 금척은 왕권을 보장해주고 제도를 마련하는 기준을 부여하는 이중의 기능을 지녔다. 자는 길이를 재는 데 쓰인 것이다. 길이를 정확하게 재야 모든 제도를 이치에 맞게 마련할 수 있고, 다스리는 사람 자신이 스스로를 구제하면서도 합당한 정치를 베풀 수 있다.²⁷⁾ 이 태조가 꿈에 받은 이 금척은 신라 왕실의 금척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의미를 감추고 있다. 왕실의 정당성을 밝히면서, 아울러 이 금척으로 올바른 정치를 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 금척은 바로 도량형의 도구이면서 피리(笛)와 음악을 정비하는 기준이었다. 그리고 세상의 정치적·사회적 풍파를 막아낼 수 있는 만파식적과 같은 신성한 권위였다. 이 태조는 악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의미이다.

악은 조화를 추구한다. 소리를 조화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 민심을 조화롭게 하여 천지의 조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을 화평하게 하면 인간의 말과 소리를 조화롭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의 불평과 불만을 해소하여 사회적 조화를 도모할 있고, 결국 정치적인 안정을 얻어 천하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악이 백성의 소리를 화평하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선 백성의 노래 즉 민요를 살피 민풍을 바로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요의 내용이 음란하면 그것은 민간의 풍속이 음란한 것을 의미하니, 왕은 이를 바로잡아 풍속을

교정하고 미풍양속을 담은 노래를 보급하여 그릇됨을 시정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 백성의 소리(民聲)란 민심을 지칭한다. 어지러운 풍속이 만연하면 당연히 어지러운 노래가 유포되어 민심을 흐트러트릴 것이다. 이때 국가가 나서서 백성을 교화하고 어지러움을 바로잡으면 자연히 백성의 소리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고 보았다. 이것이 풍화(風化)이다.

그런데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어지러워지게 된 것은 비단 백성의 풍속이 어지럽고 음란해져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정치가 잘못되고 가렴주구가 계속되어 백성들의 생존 근간이 흔들리게 되면 백성의 풍속이 어지럽게 된다. 특히 실정이 계속되어 백성의 살림살이가 피폐해지면 왕과 조정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급기야 현실정치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노래가 나타나 그 전승폭을 확산한다. 왕은 이런 노래를 채집하여 민풍을 살피고 자신의 실정이 있다면 고치게 된다. 이것이 풍자의 효용성이다.

백성의 소리를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백성들의 비판거리를 제거하여 백성들의 불만을 해소한다는 의미이다. 빗발치던 불만이 제거되면 당연히 그들의 소리가 순해지는 법이다. 그런데 소리를 화평하게 하는 것은 백성의 감정을 매만지는 일이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감정이 북받치면 소리가 격앙되고, 소리가 격앙된 상태는 마음이 동요되는 상태를 뜻한다. 감정이 격해지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격앙된 소리를 내지르게 되고, 상대는 발악하게 된다. 소리의 부조화 상태이다. 그러나 감정을 평정하고 나면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한 소리가 나온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교감에서 문제의 실마리가 풀린 것이다.²⁸⁾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도 대저 이와 같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모든 물질적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 백성들의 불만을 일일이 찾아가며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이다. 왕은 백성의 감정을 조절할 만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그들에게 다가간다. 예를 하나 들겠다.

二, 萬波息笛條)

2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2005, 279쪽.

28) 허남춘, 「조선조 예악과 근대 수용에 대한 시론」, 『반교어문연구』 제15집, 반교어문학회, 2003, 11쪽.

노래 혹은 음악이 소리의 조화된 면이라는 것은 바로 민심과 민성(民聲)을 조화롭게 한다는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악은 악기의 소리만이 아니다 그것은 말단을 두고 근본을 곡해하는 말이다. 왕과 백성이 화합함을 악이라고 한다. 악의 근본은 상하계층의 화합, 지역 간의 화합, 전통과 외래의 화합에 있다.

5. 중세의 우주관과 민심의 조화

중세의 사람들은 인간세계의 부조화나 갈등, 파탄이나 위기가 발생하게 되거나 발생할 정도의 극심한 상태에 이르면 천체나 우주의 변괴 혹은 재이(災異)가 나타난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정치적 위기의 조짐으로 보아 역사에 기록하고 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1000여 개의 자연현상과 고려사의 6500여 개, 조선 초기 100년 동안의 8000여 개의 자연현상 기록은 그들의 세계관의 반영이다. 그들은 이러한 흉조와 이상이 생겼을 때 가악을 사용하여 그 조화를 도모하기도 하고, 제사를 통해 그 본연의 질서회복을 꾀하였다. 이것이 그들의 유기체적 우주론이요 예악사상이다. 제앙을 물리치고 우주적 질서를 모색하는 데에 유교적 · 불교적 · 전통적 종교가 함께 동원되었듯이, 악을 통한 모색에 있어서도 불교적 가악과 유교적 가악과 전통적 가악이 두루 소용되었다. 중세 이전에는 “그 가악관에 대하여 전통적 가악관과 유교적 가악관 및 불교적 가악관을 아울러 가지고 있어, 그것이 천지조화 · 사회질서 · 우주적 리듬을 바르게 실현하는 방편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사유”²⁹⁾ 하였던 것이다. 중세 전기까지도 이런 특성이 두루 나타나고, 중세 후기에는 유교적 예악사상에 의거한 가악관이 나타난다. 조선조에 있었던 한 가지 예를 들겠다.

1444년 7월 가뭄 끝에 비가 내리면서 벼락이 연생전 등을 쳤고 마침 궁녀 한 명이 벼락을 맞아 죽고, 서울 시내의 다른 여자도 벼락을 맞았다. 세종은

29) 김승찬, 『한국상고문화론』, 제일문화사, 1978, 148쪽.

고관들을 불러 중국의 고사를 예로 들어 이 재변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을 말하고 사면조치 등을 시행하여 백성을 기쁘게 할 방법을 상의하라고 지시했다. 신하들은 “벼락이란 양기가 내려치는 것으로 그 기에 닿으면 죽는 것”이라면서, 재변이라 할 것도 없다고 응대했다. 그들에 의하면 목석과 금수도 벼락에 맞고 또 죽는 법이니, 어찌 그것이 꼭 인사의 잘잘못에 따라 일어나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세종은 그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궁녀와 궁궐 안의 부엌 심부름꾼들이 오래 안에 간혀 지내고 있으니 이를 줄여 내보내야겠다면서 그 밖에도 몇 가지 노인 우대책 등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종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세종은 벼락 맞아 죽은 궁녀에게는 10석의 미두, 종이 60권 그리고 관을 부의로 하사했다. 또 이튿날에는 대역, 모반, 살인, 강도 등을 비롯한 중죄인을 제외한 죄수들에게 사면령을 내렸고, 다시 그 다음 날에는 전국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면천과 봉작이 시행되었다. 또 이 날 임금의 궁녀 45명을 밖으로 내보냈다.³⁰⁾

조선 초기 130년 남짓 동안에 천등 번개가 502회, 벼락이 133회로 이를 합한 635회의 기록은 같은 기간 동안의 여러 가지 다른 재이 가운데 '낮에 보이는 별' 1281회, 햇무리 기타 등) 1191회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재이로 밝혀졌다. 조선시대 전기간을 조사한다면 적어도 이 숫자의 세 배는 된다고 할 수 있다. 천등 번개와 벼락을 대단히 중요한 재변으로 여긴 것은 이상의 논의로 충분히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재변이 일어나면 언제나 그 의미를 놓고 임금과 신하들이 여러 방면으로 심각한 논의를 해왔다.³¹⁾

30) 『세종실록』 권 105, 26년(1444년) 7월 10일(丁巳), 11일(戊午) 조.
 31) 박성래, 「한국의 과학사상 - 시험적 서론(14)」, 『과학사상』 제16호, 범양사, 1996년 봄호. 벼락이 치자 왕실의 잘못을 반성하고 특단의 조치를 내린 일을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는 데, 여기서는 종종 때 소름을 복권시킨 예를 하나 든다. 종종 때인 1513(중종 8)년 2월에는 종묘의 소나무를 벼락이 때리자 그것이 계기가 되어 소름을 추복시키는 운동이 일어났다. 소름은 문종의 왕비이며, 단종의 어머니 권씨를 가리킨다. 단종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수양대군, 즉 세조는 결국 단종을 죽이고 그 어머니를 서인으로 폐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 해 2월 28일 크게 천등 번개가 치더니 종묘의 소나무 두 그루가 벼락을 맞는 사고가 일어났던 것이다. 이

벼락으로 궁녀가 죽자 세종은 두려움을 느끼고, 죄인들의 사면조치를 궁리하여 백성을 기쁘게 할 방도를 구하라고 신하에게 명한다. 신하들은 과학적 논리로 대수롭지 않은 사건처럼 응대한다. 그러나 세종은 궁녀와 궁궐여인들이 수고로우니 숫자를 줄이라 하고, 노인 우대책을 시행하고, 죄인을 사면하는 데 이른다. 벼락이 쳤는데 죄인의 사면이 있고, 궁녀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니 신하들의 과학적 응대에 비하면 세종의 생각과 조치는 비과학적이라고 할 만하다.

조선조의 왕은 천지 자연에 변화가 생기면 이는 인간 사회에 부조화가 생길 조짐이라 여기고 근신하였다. 우선 감선(減膳)하였고, 철악(徹樂)·공구(恐懼)·수성(修身)하였다. 반찬 수를 줄여 근검함을 몸소 실천하고, 음악을 대동한 놀이를 중단하고, 자신의 결함이나 실정이 없는가 반성하고, 자기 수양에 전념하며 주변을 세심하게 살폈다. 예를 들어 옥에 갇힌 자들 중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자가 없는지 살펴 중죄인이 아니면 대체로 방면하여 민심을 수습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자연계의 재앙에 대해 지나치게 비과학적인 대처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연계의 심각한 파괴와 오염 속에서도 방자한 태도를 고칠 줄 모르고, 파멸이 눈앞에 와 있음에도 오히려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며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틀 속에서 욕망을 줄일 줄 모르는 현대인의 삶보다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확언한다. 조선조의 통치방식은 비과학적 전제가 있다 하더라도, 재앙에 대처하는 인간의 겸허함이 담겨 있다. 인간세계의 부조화나 갈등은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 특히 왕과 통치권의 자기 혁신으로 가능한 것이었기에, 자연계를 빌미로 삼아 수시로 왕이 스스로 검소한 생활을 하고 인간의 주변을 돌아보아 공정한 정치를 펴고, 민심을 어루만졌다는 시대적 논리로 읽혀진다. 왕이 반찬 수를 줄이며 검소한 생활을 하면 당연히 관료들도 그러했을 것이고 국가 전체적 재화가 절약되어 국가 경제를 강화하고 백성의 세금을 감면하는 효과를 가져와 민생이 두터워졌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이것

벼락 때문에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 종묘에서 제사를 받지도 못하고, 시골에 무명의 무덤 속에 던져졌던 문종의 왕비는 자기 자리를 되찾게 된 것이다.

이 조선조 유교의 자연관이다. 그들은 자연의 재앙을 늘 악의 범주 속에서 인식하였고, 악으로 해결하였다.

6. 결 론

노래는 소리의 조화다. 그 소리는 백성의 소리를 의미한다. 왕정을 찬미하는 소리이기도 하고 현실을 질타하는 소리이기도 하다. 아래의 소리에 대해 위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음난한 백성의 풍속을 바로 잡아 그 소리를 순화시키고, 격정적 감정의 근원을 바로 알아 그 소리를 진정시키기도 하였다. 소리 속에 백성의 마음, 즉 민심(民心)이 담겨 있다. 소리를 순화시키기도 하고 진정시키기도 한다는 조치는 민심을 수습하는 과정이다.

혜성가는 일본병의 침입이라는 위기 속에서 민심이 이반하고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당하게 되자, 화랑을 중심으로 민심을 수습하여 일본병을 물리치고 위기를 수습하여 정상을 되찾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노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겠는데 민심의 결집이 매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혜성 출현이라는 우주(자연계)의 변화는 일본병의 출현이라는 사회적 재난이 닥치게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혜성 출현의 변괴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위기를 해결한다는 사유를 담고 있다. 자연현상과 인간사회의 일이 일원론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는 신라인들의 세계관의 반영이다.

도술가도 마찬가지로 사유 속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해가 둘 나타난 변괴는 왕이 둘 나타난 사회적 변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이 변괴를 해결함으로써 국가적인 평정을 되찾게 된다는 사연이다. 애초에 해가 둘 나타났다는 것은 해가 둘인 상황처럼 불벌더위가 찾아와 농사를 망치는 자연계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계의 재앙 때문에 인간세계의 위기가 닥쳤다. 이 위기 상황을 '미륵'의 도움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미륵이라 한 것은 '미르, 마리'라 일컫는 용이고, 불(불벌더위)을 끌 수 있는 물의 상징이기도 하다. 불교가 유입된 이후에 문제 해결의 주체를 미륵불이라 했지만, 토속신앙과 불교가 습

합된 신라 후기에 미륵은 화랑의 상징이기도 했다. 물로 불의 재난을 해결한다는 사유가 후에는 화랑의 능력으로 사회적 재난을 해결한다는 사유로 변화된 두 측면을 함께 고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도술가에서 두 해 출현의 문제 해결 주체는 용 혹은 화랑이라 하겠다. 하지만 용의 주술력과 화랑의 능력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불벌더위와 가뭄을 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의 노동력이 필요했고, 반왕당파를 저지하기 위해 민심의 수습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민심을 울려야 민심이 움직인다. 도술가는 민심을 울려 인간사회를 움직이고자 했던 '주술적 소리'이자 '시적 감흥의 소리'이다.

삼국시대 소리의 감동론은 중세예악을 만나면서 『시경』의 '감동천지귀신론(感動天地鬼神論)'과 섞이게 된다. 그리고 예악형정(禮樂刑政)이란 통치이념 속에 포함된다. 중세 악의 정비는 음악제도적 차원에서만 논의되는 것은 잘못이다. 악의 정비는 적(笛) - 젓대의 소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젓대는 도량형의 기본인 척(尺)이 된다. 그리고 도량형의 완비를 통해 토지제도를 시행하고 명확한 조세제도를 정비한다. 이것이 바로 민심을 조화롭게 하는 방식이다. 소리를 다스리고 이를 다시 민심을 다스리는 방책으로 삼는 정황으로 보면 좋다. 향가에 담긴, 소리의 조화를 통해 민심을 조화롭게 하는 방식과 일치한다.

중세의 악은 화(和)를 지향하는 바, 이 조화는 바로 민심의 조화다. 조선조 예악사상도 민심 수습과 민심 조화의 차원에서 실현되었다. 우주(자연계)의 변괴에 대처하는 세종의 방식을 보면 그 사정을 여실히 알 수 있다. 벼락이 쳐서 궁녀가 죽자 세종은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 궁궐에 오래 갇혀 지내는 궁녀의 수를 줄이고, 노인 우대책을 강구하고, 죄인들을 사면하고, 백성들을 기쁘게 할 방도를 구한다. 신하들이 이 조치에 과학적 논리로 대응하지만, 세종은 우리가 보기에 비과학적 응대를 고집한다. 이유는 자연계의 변괴에 의한 인간세계의 재이를 걱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대(三代)의 전형적 방식으로 감선, 철악, 공구, 수성을 하면서 민심을 수습하려 하였다. 착한 세종의 마음을 여기에서도 읽게 된다.

중세의 왕에게서 자연계의 재앙과 인간 사회의 재이(災異)가 관련된다는 일원론적 사고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천지조화·사회질서·우주적 리듬을 바르게 실현하려는 방편이 신라시대에서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으니, 민심조화의 차원에서 주술적 사유와 예악적 대처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근대는 풍요를 누리며 문명을 자랑해 왔지만, 이상기온이나 환경 파괴 같은 자연계의 변괴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은 과연 무엇인가. 아직도 무한히 생산하고 소비하는 가운데 인간의 행복과 풍요가 있다고 믿는 오만한 현대인과, 자연계의 조그만 조짐에도 근신하고 하늘의 뜻을 따라 겸허하게 행동했던 고대인들의 심성을 비교하게 되면 우리의 갈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오래된 과거에서 미래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삼국유사』 속에 담긴 신라인의 삶과 노래는 여전히 우리의 심성을 울려 주고 있다.

○ 참고문헌

『삼국유사』, 『시경』, 『악기』, 『조선왕조실록』, 『증보문헌비고』
 김승찬, 『한국상고문학론』, 제일문화사, 1978.
 김승찬, 『향가문학론』, 새문사, 1986.
 김학성, 『한국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김학성, 『한국 고전시가의 정체성』, 성균관대 출판부, 2002.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나카자와 신이치,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 동아시아, 2003.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2.
 박성래, 『한국의 과학사상사-시험적 서론(14)』, 『과학사상』 16호, 범양사, 1996년 봄.
 서철원, 「진평왕대 해성가와 서동요 비교」, 『고전문학연구』 30집, 한국고전문학회, 2006, 117-146쪽.
 성기욱, 「『감동천지귀신』의 논리와 향가의 주술성 문제」, 『임하 최진원박사 정년논총』, 대한, 1991, 59-80쪽.
 성기욱, 「상고시가」, 『한국문학개론』, 새문사, 1992.

- 신재홍, 「혜성가의 역사적 배경」, 『한국시가연구』 16집, 한국시가학회, 2004, 27-53쪽.
 신재홍, 「항가에 나타난 정치의 이념과 현실 - 도솔가 · 안민가 · 원가를 대상으로」, 『고전문학연구』, 26집, 한국고전문학회, 2004, 189-199쪽.
 양희철, 『삼국유사 향가 연구』, 태학사, 1997.
 양희철, 「항가의 주가성을 다시 생각해 본다」, 『한국시가연구』 8집, 한국시가학회, 2000, 5-32쪽.
 양희철, 「항가 감동론의 ‘능감동천지귀신’ 연구」, 『어문연구』 32집, 어문연구학회, 1999, 269-292쪽.
 여기현, 『신라 음악상과 사뇌가』, 월인, 1999.
 이도흠, 「〈도솔가〉의 화쟁시학적 연구」, 『고전문학연구』 8집, 한국고전문학회, 1993, 50-94쪽.
 이도흠, 「항가 텍스트와 서사맥락의 합일 문제」, 『한국시가연구』 13집, 한국시가학회, 2003, 5-43쪽.
 이도흠,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 푸른역사, 2000.
 이민홍, 『한국 민족악무와 예악사상』, 집문당, 1997.
 이민홍, 『한국 민족예악과 시가문학』,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2(개정 4판), 지식산업사, 2005.
 최진원, 「항가능감동천지귀신고」, 『한국고전시가의 형상성(증보판)』, 성균관대출판부, 1996, 222-231쪽.
 허남춘, 『고전시가와 가악의 전통』, 월인, 1999.
 현용준 · 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6.
 황병익, 「혜성가의 쟁점과 의미 고찰」, 『한국시가연구』 17집, 한국시가학회, 2005, 175-217쪽.

□ 이 논문은 2008년 3월 15일 접수되고
 2008년 4월 10일 심사완료되어
 2008년 4월 1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

Monism and Hamony of the popular passion in
Hesungga(彗星歌) and *Dosolga*(兜率歌)

Nam-Choon, Heo

There are many songs not to be easily above our apprehension in *Samgukyusa*(三國遺事) It is difficult to approach with reasonable mind that a comet or a sun disappear because of singing a song. The basic principle is not enough to interpret if we conclude that these songs are incantation songs or religious mystery. Our ancestors are thought that an extraordinary calamity in the universe and nature is connected to an extraordinary calamity in human society from Ancient times to the Middle Ages.

There was process to settle the dust that repulse Japanese invading army in *Hesungga*. To tell the truth, a crisis of Japanese invading army was settled by the power of Hwalang(花郎) to help King. An extraordinary calamity in the universe give a hint of a social misfortune and calamity, the same as appearance of comet give a hint of the appearance of Japanese army. Silla(新羅) peoples solved the problem of comet, and it resulted in solution of social crisis. The secret of success was Music(樂), and they believed that Music had a power for harmony of popular passion. Monism that act of God was related to a social phenomenon was the world view of Silla peoples.

An extraordinary calamity that two suns appeared concerned with social

confusion that two kings appeared in *Dosolga*. There is more than meets the eye in this song. The song contained complicated and inscrutable story. Originally two sun's appearance meant the natural disaster such as the ruin of farm work because of the sweltering heat of the sun. Silla peoples tried to solve the situation of crisis by assistance of Maitreya. Maitreya was not a symbol of Buddhism, but a symbol of dragon bringing about the rain. There was the thought that solved the calamity of fire by water. The late term of Silla, Maitreya was a symbol of Hwalang. So there was the thought that solved social calamity by capacity of Hwalang.

The Ancient thinking on the impression of song changed to reign ideology in the Middle Ages. Also Choson dynasty's Music was revealed same level in settlement and harmony of popular feelings. That was to be expected. Choson dynastic King took special treatment and management when extraordinary calamity in the universe happened such as thunder. King went for a way making delighted peoples throughout cutting down expenditure(foods), excluding Music, standing in awe of peoples, cultivation of one's mind. I could find Monism that act of God was related to a social phenomenon in the Middle Ages.

Key Words : Hesungga(彗星歌), Dosolga(兜率歌), Music, popular feelings, Comet, Hwalang(花郎), Samgukyusa(三國遺事), Two suns, Extraordinary calamity, monism, Dregon,